



전주개인택시 진안군 향우회, 진안군에 성금 기탁

전주개인택시진안군향우회(회장 정민열)와 회원 황의옥씨는 1일 진안군청을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해달라며 각각 성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성금을 기부한 전주개인택시 진안군향우회는 전주에서 개인택시업에 종사하는 진안군 출신 택시기사들의 모임으로 택시랩핑 광고와 흉보책자 비치 등을 통해 진안군 홍보 대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정민열 회장과 황의옥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소외된 이웃 없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은 기탁 받은 성금을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소방서,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

남원소방서(서장 백성기)는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 관내 겨울철 화재는 211건으로 총 2,544백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겨울철 화재발생 비율은 30.9%로 사계절 중 가장 높았고, 사망자 비율도 27.0%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안전대책으로 7대 전략 30개 중점 추진과제로 △특정 소방대상물 화재안전관리 강화 △시설물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화재취약자의 대응능력 강화 △화재취약요인 제거 △화재안전관리 제도개선 △대도민 화재안전 홍보활동 △지역 맞춤형 특수시책을 추진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군, 산불방지 유공자 표창 전수식 진행

장수군이 1일 군청에서 ‘산불방지 및 진화 유공자 표창 전수식’을 진행해 형성진 번암면 의용소방대장에게 선립장을 표창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선립장은 매년 산불방지에 헌신한 국민, 공무원, 단체 등

의 유공자를 발굴해 그 공적을 격려하고 있다.

형성진 대장은 지난 3월 번암면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작업 시 신속한 현장 참여로 조기 진화에 큰 역할을 하고, 진화작업 중 부상을 당한 동료 대원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등

의 공적을 인정받아 표창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수=고판호 기자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진안군 1호 탄생

손효연 농가, 한국 최고 특작분야 명인 선정

진안군에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 1호가 탄생했다.

그 주인공은 진안군 미령면에서 인삼농사를 하고 있는 손효연(63)로 농업 농촌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 기술을 보유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선별하는 농업기술 명인으로서 특작분야 명인으로 선정됐다.

농업기술 명인은 현재 영농에 종사하고 전체 영농경력 20년 이상 경력자이며, 차별화되는 기술 경쟁력 및 주변 농가에 기술을 전파하는 등 귀감이 될 수 있는 농업인만이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번 명인으로 선정된 손효연 농가는 영농 종사경력이 30년이 넘는 베테랑 농업인으로서 특히 특작분야(인삼)에서 도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심사위원들에게 친환경 묘묘 재배 및 전국 최초 환경조절 하우스 재배로 묘묘 일고병 방제, 농업 경비 및 노동력 절감 등 재배기술 향상에 기여한 점에 대해 큰 호평을 받았다.

그 밖에도 관행 재배와 무농약 재배 비교시험, 사포니 비교 분석실험, 자체 재배기술 전파, 지역사회 기여 등 명인으로서 면모를 보여 왔다.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 주관하에 시작된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은 전체 5개 분야(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별 각 1명씩 선정되며, 선정 시 대한민국



최고 농업기술 명인이라는 칭호와 함께 인증패, 핸드프린팅 등 관례 제공된다.

손효연 농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인으로 최종 선정되어 자긍심을 느끼며, 앞으로도 우리 농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명인 선정을 위해 주변에서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특히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진안군농업기술센터 고경식 소장은 “대한민국 흥십특구의 고장인 진안에서 인삼 명인을 배출했다는 점은 감회가 새롭다”며, “앞으로도 진안군 농업 발전 및 재배기술 향상 등을 위해 농업인에게 아낌없는 지원과 지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경찰서, 뱃사골 계곡 합동 안전진단 실시

남원경찰서(서장 김진형)는 1일 가을 행락철 다수 관광객이 찾는 뱃사골 계곡 데크길(신성길)에서 관계기관 합동 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이날 안전진단은 최근 서울 이태원 소재 ‘할로윈 축제’에 입사로 인한 다수의 인명사고·참사 관련, 관내 뱃사골에 등산객 등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데크길(2.8km 구간) 이용객들의 인명사고가 우려되어 지리산전북사무소와 합동으로 선제적 진단·점검이 이루어졌다.

김진형 경찰서장은 “최근 이태원 할로윈 대규모 암사 인명사고·관련, 공공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며, ‘안전불감증’에 사로잡혀 공공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안일한 생각은 버리고 꾸준하고 실속있는 사전 점검 및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과 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서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서부지방산림청(청장 황성태)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예방·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산불방지대책본부는 5개 국유림관리소와 관내 53개 시·군·구의 산불방지 유관기관과 공조체계를 유지하여 유기적인 초동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재난특수진화대 및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산불방지 인력을 총동원하여 가을철 산불 주요원인인 임산자 실화 예방을 위해 임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산불위험이 높은 취약지역에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하여 산불예방·진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 청하면 새마을부녀회, 화재발생 가정에 성금 기탁

김제시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자)는 1일 지령선축제 부스 운영 수익금 100만 원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했다.

이 성금은 10월 26일 화재로 주택이 전소되면서 긴급한 상황에 처한 관내 화재 주민에게 전달되었다.

청하면 새마을부녀회(회장 이미자)는 “날도 추워지는데 당장 생필품이라도 사려면 현금이 필요할 거 같아 소액이라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 한우 국거리 131kg 기부

(사)전국한우협회 김제시지부(지부장 정기섭)는 1일 관내 저소득 가정에게 전달해달라며 한우 국거리 131kg(465만원 상당)을 김제시에 기탁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정기섭 지부장은 “경기침체로 힘들어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매우 뜻깊고,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